Issue Briefing

Vol. 2009-04 (2009.04.7)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

수출기업의 최근 원화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

I. 원화환율 상승의 긍정적 측면 평가 ····· 1

1. 수출물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····· 1
2. 채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 ····· 2

II. 원화환율 상승의 부정적 측면 평가 ····· 4

1. 생산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 ····· 4
2. 환관리 비용에 미치는 영향 ····· 5

III. 원화환율 상승에 대한 종합적 평가 ····· 7

IV. 시사점 ····· 8

작성 : 선임연구원 이재우 (3779-6685)
jaewoolee@koreaexim.go.kr

확인 : 실장 안상술 (3779-6679)
ssahn@koreaexim.go.kr

한국수출입은행

< 요 약 >

□ **수출기업은 최근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** 긍정적 효과보다 **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**는 것으로 나타남

○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기업비중이 39%,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낀 기업비중은 32%, 두 효과가 중화된다고 판단한 기업이 30%

※ 부정적 효과 :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, 환관리 비용 증가

※ 긍정적 효과 : 가격경쟁력 증가, 수출채산성 증가

○ 부정적 효과는 소재 및 부품에 대한 대외의존성이 높고(석유제품, 자동차 부품 등),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 관리를 많이 하는 산업(선박 등)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
○ 긍정적 효과는 환변동에 위험이 크게 노출되지 않는 산업(플랜트 등), 수익구조상 해외원부자재의 비중이 높지 않는 산업(섬유류 등)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
□ **환율상승의 효과는 산업별,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**나므로, **정부는** 환율효과에 대한 일방적 판단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**환율변동폭 축소 및 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**에 힘써 시장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할 것임

	긍정적 효과		부정적 효과		종합적 판단
	수출물량 증가	수출채산성 개선	생산비용 증가	환관리비용 증가	
전체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대기업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중소기업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석유화학	○	○	○	△	부정 = 긍정
석유제품	**○**	**△**	**○**	**○**	**부정 ≫ 긍정**
철강/비철금속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전기전자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기계류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자동차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선박	**○**	**○**	**○**	**○**	**부정 ≫ 긍정**
섬유류	○	○	○	△	부정 < 긍정
플랜트	○	○	○	×	부정 = 긍정

주) ○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66.7% 이상
△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33.4% ~ 66.6%
×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33.3% 이하
= :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 = 0%p
≥ : 0%p <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 < 25%p
≫ : 26%p <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

I. 원화환율 상승의 긍정적 측면 평가

1. 수출물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 중 80%는 원화환율 상승이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수출물량을 증가시킨다고 밝힘

○ 33%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반면 47%는 수출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답함

○ 20%는 수출물량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답함

□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효과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나타남

○ 대기업의 경우 78%의 기업이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다소 높은 80%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함

- '매우 영향을 줄 것'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중의 경우에는 중소기업(35%)과 대기업(27%)간 차이가 더 확대됨

○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는 달리 아직 기술수준이 낮아 수출품의 품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

□ 산업별로는 전기·전자, 플랜트, 자동차 산업의 수출물량이 환율상승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전기·전자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, 반도체 등에 있어 국제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므로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환율상승이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

○ 섬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< 원화환율 상승이 수출물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>

	증가			영향 거의 없음
	크게 증가	소폭 증가	소계	
전체	33.0%	46.8%	79.8%	20.2%
대기업	26.5%	52.0%	78.4%	21.6%
중소기업	35.0%	45.3%	80.2%	19.8%
석유화학	35.0%	38.3%	73.3%	26.7%
철강/비철금속	31.4%	47.1%	78.6%	21.4%
전기전자	32.2%	50.4%	82.6%	17.4%
기계류	31.6%	48.4%	80.0%	20.0%
자동차	29.0%	52.2%	81.2%	18.8%
선박	42.9%	35.7%	78.6%	21.4%
섬유류	31.3%	40.6%	71.9%	28.1%
플랜트	50.0%	33.3%	83.3%	16.7%
기타	40.0%	40.0%	80.0%	20.0%

2. 채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중 83%는 원화환율 상승이 원화기준 매출을 증가시켜 수출 채산성을 개선시킨다고 밝혀, 원화환율 상승이 채산성 개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

○ 30%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반면 53%는 채산성 개선의 폭이 크지는 않다고 밝힘

○ 17%는 환율상승이 채산성 개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함

□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

○ 개선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(83%)과 대기업(82%)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, '크게 개선시킨다'고 답한 기업비중은 중소기업이 32%로 대기업(27%)보다 높음

○ 원화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측면이 전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침

□ 산업별로는 플랜트, 자동차, 섬유류 산업의 채산성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자동차 산업은 부품 및 소재의 대외의존성이 낮아 환율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채산성 개선 효과가 큼

○ 플랜트 산업의 경우 외화가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기준 수익증가액이 비용상승분을 상회하여 채산성 개선도가 높음

○ 섬유류의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대외의존성이 높지만, 수익구조상 원부자재 비용의 비중이 높지 않아 채산성 효과가 크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

○ 선박의 경우, 외화가득효과가 높은 산업이긴 하나, 환헷지 등에 따른 비용증가가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
< 원화환율 상승이 채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 >

	개선			영향 거의 없음
	크게 개선	소폭 개선	소계	
전체	30.6%	52.5%	83.1%	16.9%
대기업	26.5%	55.9%	82.4%	17.6%
중소기업	31.8%	51.6%	83.4%	16.6%
석유화학	35.0%	46.7%	81.7%	18.3%
철강/비철금속	27.1%	52.9%	80.0%	20.0%
전기전자	27.3%	57.0%	84.3%	15.7%
기계류	28.4%	56.8%	85.3%	14.7%
자동차	31.9%	56.5%	88.4%	11.6%
선박	35.7%	42.9%	78.6%	21.4%
섬유류	28.1%	59.4%	87.5%	12.5%
플랜트	50.0%	50.0%	100.0%	0.0%
기타	26.7%	46.7%	73.3%	26.7%

II. 원화환율 상승의 부정적 측면 평가

1. 생산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중 82%는 원화환율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요인 있다고 밝힘

○ 37%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반면 44%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힘

○ 비용상승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다른 효과(수출물량, 채산성)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

□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환율상승의 비용상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
○ 비용상승 효과가 있다고 답한 대기업 비중은 83%이고 중소기업은 81%로 나타났으며, '매우 영향이 있다'고 답한 기업의 비중도 대기업(40%)이 중소기업(36%)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

○ 이는 대기업의 비용구조의 대외의존성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활동의 가치사슬이 국제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

□ 산업별로는 석유제품, 섬유류, 기계류, 전기·전자 산업에서 환율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기계류 및 전기·전자 산업의 경우 소재 및 부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환율상승에 대한 비용상승이 큰 것으로 판단됨

○ 석유제품 및 섬유류 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남

○ 철강/비철금속 산업의 경우, 제강 및 중소철강재 업체들의 원부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낮아 환율상승이 비용상승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< 원화환율 상승이 비용상승에 미치는 영향 >

	비용상승			영향 거의 없음, 모름
	크게 상승	소폭 상승	소계	
전체	37.3%	44.3%	81.6%	18.4%
대기업	40.2%	43.1%	83.3%	16.7%
중소기업	36.4%	44.7%	81.1%	18.9%
석유화학	48.3%	36.7%	85.0%	15.0%
석유제품	66.7%	33.3%	100.0%	0.0%
철강/비철금속	31.4%	38.6%	70.0%	30.0%
전기전자	42.1%	44.6%	86.8%	13.2%
기계류	33.7%	55.8%	89.5%	10.5%
자동차	33.3%	40.6%	73.9%	26.1%
선박	57.1%	28.6%	85.7%	14.3%
섬유류	53.1%	37.5%	90.6%	9.4%
플랜트	16.7%	66.7%	83.3%	16.7%
기타	6.7%	53.3%	60.0%	40.0%

2. 환관리 비용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기업중 52%는 원화환율 상승으로 환헷지 등 환위험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

○ 29%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해 세 기업 중 하나는 환율상승으로 환위험 관리에 실패하여 예상밖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

○ 이는 많은 기업들이 최근 환율상승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며, 기업활동에 있어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임

□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환관리 비용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○ 대기업 중 58% 기업이 환관리 비용이 상승했고, 38% 기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이 작년 KIKO 사태 이후 선물환 구매 등 환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예상을 상회하는 환율변동에도 피해를 받지 않음

□ 산업별로는 선박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환관리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○ 선박업체의 경우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구매하였던 선물환이 환율의 예상밖 상승으로 손실화됨

- 선박업체는 환위험 관리를 위해 선수금 지급 시점에 맞추어 선물환을 구매하는데 선물환 구매시 환변동에 대하여 예상을 잘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됨

○ 플랜트 산업의 경우 收入 및 비용처리가 대부분 미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헷지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환율변동에 따른 환관리 비용 상승이 크지 않음

< 원화환율 상승이 환관리 비용에 미친 영향 >

	증가			영향 거의 없음, 모름
	크게 증가	소폭 증가	소계	
전체	29.0%	22.8%	51.9%	48.1%
대기업	38.2%	19.6%	57.8%	42.2%
중소기업	26.4%	23.8%	50.1%	49.9%
석유화학	33.3%	23.3%	56.7%	43.3%
철강/비철금속	24.3%	30.0%	54.3%	45.7%
전기전자	24.8%	21.5%	46.3%	53.7%
기계류	33.7%	24.2%	57.9%	41.1%
자동차	33.3%	23.2%	56.5%	41.5%
선박	50.0%	21.4%	71.4%	28.6%
섬유류	31.3%	21.9%	53.1%	46.9%
플랜트	33.3%	0.0%	33.3%	66.7%
기타	26.7%	13.3%	40.0%	60.0%

III. 원화환율 상승에 대한 종합적 평가

□ 환율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수출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기업비중이 39%,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낀 기업비중은 32%, 두 효과가 중화된다고 판단한 기업이 30%로 나타남

○ 이는 산업 전반적으로 최근 환율상승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임

- 가격경쟁력 상승 및 채산성 개선을 인정하면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답한 기업 중 90%의 기업은 생산비용 상승을, 62%의 기업은 환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답함

- 그러나 이는 환율상승 일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최근 예상보다 급등세를 보인 상황에 대한 평가로 예측실패에 따른 악영향도 포함된 평가로 보아야 함

□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기업의 비중(40%)이 중소기업(38%)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

○ 이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환헷지 상품에 많이 가입하였고 이 상품이 환율의 예상밖 상승으로 손실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

□ 산업별로는 선박산업에서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기업비중이 가장 높음

○ 선박의 경우 선물환 구매 등 환헷지에 따른 손실부담이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- 환율상승에 따른 환관리 비용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이 많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밝힌 기업비중이 높게 나옴

○ 섬유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

- 섬유산업의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비용상승보다 수익성 및 채산성 개선 효과가 크고 환헤지 상품가입에 대한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

< 원화환율 상승효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 >

	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	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	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비슷하여 효과 중화
전체	31.7%	38.6%	29.7%
대기업	34.3%	40.2%	25.5%
중소기업	30.9%	38.1%	30.9%
석유화학	33.3%	33.3%	33.3%
석유제품	16.7%	50.0%	33.3%
철강/비철금속	27.1%	45.7%	27.1%
전기전자	31.4%	33.9%	34.7%
기계류	31.6%	38.9%	29.5%
자동차	30.4%	47.8%	21.7%
선박	28.6%	57.1%	14.3%
섬유류	34.4%	25.0%	40.6%
플랜트	33.3%	33.3%	33.3%
기타	33.3%	53.3%	13.3%

IV. 시사점

□ 수출기업에 대한 환율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환율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,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 등 부정적 효과도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

○ 최근 환율상승이 예상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선물환 등 환헷지 상품을 구매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됨

- 환관리 비용은 선박 및 석유제품 수출기업에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□ 산업별 환율상승의 효과는 산업별 경영활동의 대외의존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함

○ 특히, 글로벌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이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의 상승·하락의 효과를 하나로 평가할 수 없음

□ 환관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나, 환율전망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경우 손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○ 환위험 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KIKO로 볼 수 있음

□ 따라서 정부는 환율효과에 대한 일방적 판단으로 환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환율변동폭 축소 및 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에 힘써 시장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할 것임

< 원화환율 상승효과 종합 >

	긍정적 효과		부정적 효과		종합적 판단
	수출물량 증가	수출채산성 개선	생산비용 증가	환관리비용 증가	
전체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대기업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중소기업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석유화학	○	○	○	△	부정 = 긍정
석유제품	**○**	**△**	**○**	**○**	**부정 ≫ 긍정**
철강/비철금속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전기전자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기계류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자동차	○	○	○	△	부정 ≥ 긍정
선박	**○**	**○**	**○**	**○**	**부정 ≫ 긍정**
섬유류	○	○	○	△	부정 < 긍정
플랜트	○	○	○	×	부정 = 긍정

주) ○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66.7% 이상
△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33.4% ~ 66.6%
× :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비중이 33.3% 이하
= :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 = 0%p
≥ : 0%p <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 < 25%p
≫ : 26%p < (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 −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답한 기업비중)

참고 : 설문조사 개요

○ 설문기간 : 2009년 3월 2일 ~ 3월 13일

○ 설문회수 기업수

・총 451개 기업(대기업 102개, 중소기업 349개)